

무에서 창조된 유해도 가지 있지만 그렇다 하여 유에서 창조된 또 다른 유를 평가절하할 순 없는 일이다. 소위 전례라 부를 만한 결과물을 놓고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하는 일은 백지 위의 창조만큼 녹록찮다. 리메이크 앨범을 들고 나오는 가수들의 멘트를 들어보면 안다. “선배님의 노래를 맞춰놓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그 전례가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았다면 후발 주자로 나서는 이의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청준 판소리 동화

새 옷 입힌 판소리 다섯 마당, 오색 맛을 느껴보세요



작가적 상상력과 글맛 더한 이청준 판소리 한 마당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 이청준 씨의 ‘이청준 판소리 동화’가 이런 부담을 안고 10여 년 만에 새옷을 걸치고 등장했다. 편집을 총책 임진 파랑새어린이 박현이 팀장은 “중심인물들 곁에서 정리하는 일밖에 안했다”고 겸손해 한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제목만 입력해도 몇백 개씩 검색이 될 만큼 비교대상이 많은 책”이란 말을 들으니 차별화를 꾀하는 데 적잖이 공을 들인 내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다섯 권의 동화는 1997년 처음 선을 보였을 때부터 독자, 편집자들 사이에서 잘 만든 책으로 인정을 받아 스테디 셀러가 된 지 오래였다.

리메이크가 본디 전작의 답습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인 만큼 박 팀장이 만든 2005년 개정판 ‘이청준 판소리 동화’는 전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물론 기본 골격은 변함없되, 새 시대 독자 입맛에 맞게 새로운 편집들을 마련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좋은 책을 가려 뽑아 입을 줄 아는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글은 이청준 선생님 것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본래 선생님께선 한 번 탈고한 작업은 그것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크게 손을 대진 않았어도 10년 사이 변한 독자들 입맛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있었 습니다.”

편집과정을 들어보니 11월 경, 이청준 씨는 파랑새어린이측에 수정, 보완한 원고를 넘겼다. 박 팀장에 따르면 전승된 이야기를 ‘날 것’ 그대로 신는 게 아니라, 저자만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이청준판 판소리 동화’다. 가령 <웅고집타령>의 경우는 작가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캐릭터의 성격을 실감나게 보여준 작품 중 하나다.

한편 이청준 판소리 동화만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독자가 있을까 염려됐는지 이번 책에선 가이드 형식의 해설을 덧붙였 다. 박 팀장은 아동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등이 참여한 해설 부

- 이청준 판소리 동화 (전5권)
- 파랑새어린이 | 100~180쪽 내외 | 값 1~4권 7,500원, 5권 8,000원
- <수궁가 토끼야, 용궁에 벼슬가자> 이청준 글 | 박승범 그림
- <웅고집타령 웅고집이 기가 막혀> 이청준 글 | 채진주 그림
- <심청가 심청이는 뻥이 든든하다> 이청준 글 | 구보림 그림
- <홍부가 놀부는 선생이 많다> 이청준 글 | 추기연 그림
- <춘향가 춘향이를 누가 말려> 이청준 글 | 나영 그림

분은 일반 판소리의 특징은 물론, 이청준판만의 특징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환희 선생의 해설 중 '더듬'에 관한 부분은 이청준의 판소리 동화를 딱 꼬집어 말하지 못하고 있던 편집부 직원들을 속시원하게 해준 대목이다. '더듬'이란 소리꾼이 전승된 이야기에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휘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더 넣은' 대목을 의미했다. 과연 이청준 판소리 고유의 특징을 뜻하는 정확한 표현이었다.

**정병규 씨 지휘 아래 다섯 명의 신진 고수들,
"졸업앨범까지 펼쳐놓고 캐릭터 고민했어요"**

소리꾼이 목을 가다듬고 다시 판을 벌였고, 곁에 맛깔스런 평까지 추가됐는데 고수가 없으면 안 될 일! 박 팀장은 추임새를 넣어주며 리듬을 살려준 다섯 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수궁가》《옹고집타령》《심청가》《홍부가》《춘향가》 다섯 권에 각기 다른 그림을 그려준 그림작가들이다. 실제로 전작과의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번 책에 실린 그림들이다. 전작의 경우 그림작가 김복태 선생이 혼자 다섯 권의 그림을 다 그렸다면, 이번에는 각기 개성이 다른 그림체를 자랑하는 젊은 작가 다섯 명이 참여했다.

"디자이너 정병규 선생님께서 아트디렉터 역할을 해주셨어요. 홍익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다섯 명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고수로 나서게 됐죠. 초반엔 이청준 선생님이 주신 텍스트를 읽고 어떤 장면을 넣을 것인가 하고 저도 그림을 그려 봤으나 김복태 선생님 그림의 이미지를 떨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전작이 있다는 게 이래서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중견 그림작가들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 팀장은 고개를 내젓는다. 기존에 나온 옛 이야기 책의 경우에 대체로 길쭉하고 서구적인 캐릭터를 그리려는 경향이 강해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이었고 한편으로는 열정으로 뭉친 신진 작가 발굴에 목말라 했던 부분도 있었다. 박 팀장은 "심하게는 글 작가와 출판사만 다를 뿐 한 작가의 비슷하거나 같은 그림이 여러 출판사 책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림 준비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죠. 5~6개월 동안은 정병규 선생님 도움 아래 캐릭터를 잡고 전통그림들, 복식사 책을 탐독하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글 검토 받듯이 트레이닝을 한 후 두 달 정도 바짝 그림을 그리도록 스케줄을 잡았구요. 제 눈엔 누구 것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안 보일 만큼 개성들이 강한테 열정 많은 작가들은 남들 그림이 더 좋아 보였나 봐요. 우스갯소리지만 은근히 시샘들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다섯 편의 작품 모두 다른 재료와 색채로 다양한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장면 연출법도 제각각이었다. 다섯 작가 중 《홍부가》를 그린 조가연 씨는 아예 모교 졸업앨범을 펼쳐놓고 캐릭터 연구에 빠졌었다. 워낙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다양한 몽타주가 필요했고 급기야는 졸업앨범을 펼쳐놓고 홍부 얼굴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도 했다는 사연이다. 그림 역시 글 곁

에 놓인 또 다른 글이고 보면, 어떤 장면에서 어떤 스토리의 그림이 들어가야 적절할지,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를 고민하는 과정도 그림작가와 편집자의 몫이었다. 일례로 《심청가》의 경우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에서 빠지기 직전인지, 빠지는 순간인지, 빠진 이후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후의 잔상을 담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다.

박 팀장은 "이청준 선생의 '이름값' 못지않게 다섯 명 작가들의 공력이 개정판에서 큰 의미를 보여준다"며 "시간이 나는 독자라면 언젠가 꼭 한 번 이분들의 전작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판소리 동화 그림을 그리면서 180도 다른 그림체를 선보였기 때문에 전작을 보면 과연 한 작가의 작품인가 의심이 들 정도란다.

초판과의 '비교'는 No, 당대의 책들 속에서 가치 평가받길

소리판을 진행, 준비한 편집부는 이번 책 덕분에 배운 게 많다.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에게 읽힐 것을 고려해 각주를 달았다. 기독교성을 살리기 위해 쉽없이 읊어야 하는 판소리에 구절구절 씬을 넣고 단락구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때 편집자로도 활동했던 이청준 씨의 자문과 충고도 많이 들었다.

"처음엔 발동이 걸려서 각주를 엄청 길게 달았죠. 그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수고롭긴 한데 이걸 사전이 아니라 재밌는 동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어린이책에 각주를 달다 보면 무조건 정보를 많이 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번 책은 박현이 팀장에게도 각별하다. 한때 파랑새 어린이사를 퇴사했다 다시 들어온 그로서선 재입사 후 처음 맡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랑새어린이책에서 보면 10여 년 만에 재출간이나 다름없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책이기에 또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박 팀장은 초판과 개정판의 우열을 따질 순 없다고 말한다. 1997년에 나온 초판은 그 시대에서 의미를 가졌고, 2005년도에 나온 지금의 책은 요즘 어린이책들 속에서 의미를 갖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박 팀장은 "편집자가 바라는 것은 붓물처럼 쏟아지는 지금의 옛 이야기 책들 중에서 독자들이 이 책의 숨은 가치와 귀함을 알아주는 것"이라며 "10년 후 이 책이 어떤 다른 옷을 입고 나올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출판사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파랑새어린이 박현이 팀장